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호중구감소증 발생시 류코스팀(Leukostim.®)의 효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과

나종명, 김성경, 허성은, 김은정, 주강, 조홍주, 김훈교

서론 :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G-CSF)는 항암화학요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발열성호중구감소증이나 감염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류코스팀은 국내 최초로 사제 개발된 재조합 인간 Filgrastim(recombinant human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rhG-CSF)제제이다. 저자들은 항암화학요법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수억제부작용에 대한 류코스팀의 효능 및 부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28명의 암환자에서 호중구감소증의 기준을 절대호중구수 $1000/\text{mm}^2$ 이하로 정하고, 류코스팀을 1일 $150\mu\text{g}/\text{day}$ 를 절대호중구수 $1000/\text{mm}^2$ 회복까지 피하주사하였으며, 호중구 감소증 환자중 호흡기 증상 및 열감 등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7명에게는 예방적인 항생제투여를 실시하였다.

결과 : 폐암 18명(64.3%), 위암, 난소암, 대장암 각각 2명(7.1%), 비인두암, 나발성 골수종 각각 1명(3.6%)이었다. 27명의 환자 중 26명은 평가 가능하였고, 1명은 암으로 인한 골수전이에 의해서 효과평가가 불가능하였다. 치료전 절대호중구수의 평균 최저치 $423/\text{mm}^2$ (최저: $0/\text{mm}^2$ - 최고: $2659/\text{mm}^2$), 류코스팀 투여일수 평균은 2.82일(최저 1일 - 최고 7일)이었다. 감염이 의심되어 예방적 항생제 투여했던 환자들에게서 발열성호중구감소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3명에서 중등도 이상의 요통을 호소하였고, 근육통, 뼈통증, 복통, 설사, 용통이 각각 1명이었다. 발생한 부작용은 모두 조절가능하고 경미한 것이었다.

결론 : 항암화학요법후에 발생한 호중구감소증에 대해서 류코스팀 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

피부발진과 흉수 및 골수침범을 동반한 혈관면역모세포형 림프절종대(ALID) 1예

울지외과대학교 을지병원 내과 변영혜*, 공수정

배경 : 혈관면역모세포형 림프절종대(angioimmunoblastic lymphadenopathy with dysproteinemia(ALID))는 진신적 림프절종대, 간비장종대, 발열, 피부발진 및 polyclonal hypergammaglobulinemia 등을 동반하고, 림프종으로 진행하는 예후가 불량한 질환이다. ALID에서 림프절이외의 장소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피부(50%), 폐(38%), 골수(70%) 등으로 2곳을 침범한 경우는 간혹 보고되고 있지만 3곳 모두 침범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저자들은 피부발진과 흉수 및 골수침범을 동반한 진형적인 ALID 환자를 보고하는 비이다.

증례 : 74세된 남자환자가 1주일전부터 시작된 간헐적 발열과 진신쇄약감 및 복부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7년전 당뇨를 진단받았으며 보건소에서 인슐린으로 치료받고 있었고 그외 약물 복용 병력은 없었다. 내원당시 체온은 정상하였고 양측 경부, 액와, 서혜부에서 다수의 림프절이 촉진되었고 양측 배음은 정상이었다. 장음은 약간 항진되어 있었으며 하복부 압통이 있었으나 방사통은 없었고, 비송내가 있었으며 양측 하지에 흉반성 피부발진이 관찰되었다. 흉부 단순촬영에서 양측 흉수가 관찰되었으며 경부, 흉부, 복부 단층촬영에서 양측 흉수와 다수의 덩어리가 된 림프절 및 비장송내가 관찰되었다. 경부 림프절의 조직검사서 작은 혈관들의 증식과 크기가 작은 림프구, 혈장세포 및 호산구의 침윤이 보였다.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7,500/\mu\text{l}$ (중성구 45%, 림프구 36%, 호산구 12%), 혈색소 $10.4\text{g}/\text{dl}$, 혈소판 $172,000/\mu\text{l}$ 였고, 생화학검사상 총단백 $7.2\text{g}/\text{dl}$, 알부민 $2.3\text{g}/\text{dl}$, LDH 473U/L (150-520)였으며, 전기영동검사서 polyclonal gammopathy가 보였으며 ANA가 양성이었다. 골수검사서도 림프절 조직검사서에서 관찰되었던 소견과 같은 소견이 보였다.

경과 : 현재 환자의 연령 및 진신상태를 고려하여 prednisolone 단독으로 투여중이며 진신쇄약감과 복부통증은 호전되었으나 경부 림프절의 크기는 두드러지게 줄지 않고 있으며 외래에서 경과 관찰중이다.